

*침심 공양을 앞두고 청량의 대법안선사에게 한 승려가 찾아왔다. 법안은 손으로 발을 가리켰다. 곁에 섰던 스님들이 일어나 발을 걸어들었다. 법안이 말했다. "하나는 옳은데 하나는 틀렸다."

"나 해개가 말한다. *자, 말해보라. 대체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여기서 눈 하나를 얻는다면 청량의 패착까지 알아낼 수 있을 터. 그렇지만 이리 저리 머리 굴러서는 절대로 아니되지."

*송하여 가로되, "발을 걸으니 환한 하늘이네. 그 환한 하늘도 선의 근본과는 거리가 있는 것. 어찌서 그 하늘마저 내던져 버리지 않았을까. 꿈꿈 촌촌하여 비바람 한 점 통하지 않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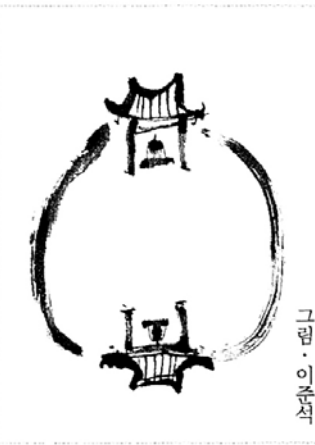
二僧卷簾：
清涼大法眼，因循前上參，眼以手指簾，時有二僧，同去卷簾，眼曰，一得一失，無門曰，且道是誰得誰失，若向者裏，著得一髮，便知清涼國師敗處，然雖如是，切忌向得失裏商量，頌曰，卷起明明徹太空，太空猶未合吾宗，爭以從空都放下，綿綿密密不通風。

때는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법안은 곧 나를 침심을 대중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발을 먹는 일은 그 자체가 엄숙한 의례였다. 그래서 재(齋)라 한 것이다. 공양(供養) 또한 마찬가지로 취지를

한형조 무문관 탐방

42

법안의 발 ①



수 없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된다. 선은 한결을 더 나아간다. 내면의 선악과 동기는 내적 징표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심리적 정서적 정서적으로도 혼란된 기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고 있다!

조주도 차를 따라 마시고, 나도 출근하면 차를 끓인다. 그럼에도 조주는 안한한데 나는 이리도 어지럽다. 그와 나는 무엇이 다른가. 조주의 어록과 문집에 실린 에피소드에서 나는 한없는 선함과 외경을 본다. "조주는 그의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아무런 갈등과 괴리가 없구나. 그는 내적으로 혁명대시 않고 외적으로 허둥대지 않는다. 그는 세상에 특성이 없다는 것, 그 궁극의 진실을 체험하며 살고 있구나."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다. 나는 조주의 내적 경지를 그저 투사(project)하고 있을 뿐이다. 내 내면의 공경에 대한 불만과 동경으로 하여 오히려 뒤틀린 프리즘으로 말미암아. 조주의 말이든, 그로 연상되는 경지든, 내가 헤아리고 판단하려 든다면 벌써 어긋나기 시작한다. 깨달은 자의 내면은 오직 깨달은 자만이 교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행 동주의적 표지로 삼아 심리적 정서적 공감을 통해 판단

일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본지는 태국의 고승 아잔차 스님의 제자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책 콘필드박사가 1995년 미국에서 출판한 (제가불자를 위한 팔정도)를 요약해 연재한다. 콘필드는 깨달음은 경전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눈·귀·코·혀·몸, 마음의 작용에 있으며, 이러한 공부를 직접 실천에 옮겨 마음챙김을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위빠사나 수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요즘을 관념적인 팔정도가 아니라 직접 생활속에서 실천으로 다가오는 팔정도의 의미를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책·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1

정견 ①

명상은 소박하고 단도직입적인 수행이다. 사람들은 대개 명상센터에서 명상법을 배우고 20여년간의 좌선으로 수행을 처음 시작해 10여년간의 단기수행으로 발전해 나아간다.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사람들 중에는 "무조건 시작해 보는 거야"라며 3개월간의 장기수행에 주저없이 참가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 그러나 초심자들은 하루 정도의 좌선을 하고선 명상이란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며 중도 탈락하는 경우도 꽤 있다. 그들은 명상에 쏟았던 관심만큼 수행에서도 '불입과 즐거움'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안이비설신의 작용서 깨달음 발견 "사물에 집착하면 고통 따르네"

부처님이 어떤 나라를 방문했을 때, 한 남자가 "매우 뛰어나 보이는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묻자 부처님은 "나는 깨달았다"라며 지나친 일화는 수행자의 자세와 불교의 진리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 혹은 불자가 되기 위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행은 내면에 숨겨있는 깨달음의 능력을 스스로 보기 위한 몸부림이 되어야 한다. 지금 바로 여기 우리 몸과 마음에서 부처님이 실천 고



▲미국 출생
▲태국, 인도, 미얀마에서 6년간 두타행
▲1963년 미 디트로이트대학 임상심리학 박사학위
▲1965년 아잔차등 남방선사 지도로 수행
▲1974년 미 명상수도원 개원
▲현재 미 나로피연구소에서 위빠사나 연구·수행. 저서로는 <남방의 선사들> <마음 속의 길> 등 다수.

있는 것이다. 일상 속에서 수행자가 마음을 챙길수 있도록 부처님이 가르친 지혜가 바로 팔정도(八正道)이다. 따라서 팔정도는 경전이나 책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작용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물에 집착하고 즐거움을 얻을 때, 그 만큼의 고통도 연이어 따라온다.

번역 정리=오종욱 기자

"눈을 속인 자리는 어디인가" 깨달은 자의 내면 오직 깨달은 자만 교감

닫고 있다. 절집의 아침은 대개 죽(粥)이고 저녁은 본래 없었다. 인도불교는 해가 지고 난 뒤에는 음식을 취하지 말라고 일렀지만, 이 계율은 저녁이 길고 날씨가 추운 동북아시아에서는 지켜지기 힘든 것이다. 그래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약석(藥石)이라는 이름에는 그 타협과 양보에 대한 미안함과 겸연쩍음이 담겨 있다. 그러나 진짜 식사는 점심이었다. 허한 배를 달래며 혹은 즐기며(?) 공양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의 처소에 객승 하나가 찾아왔다. 길을 찾아 구름처럼 떠도는 이 승려자에게 법안은 노과심을 발휘했다.

법안의 눈에 문에 처진 발(簾)이 들어왔다. 대나무로 살을 만들어 엮은 간소한 것이 여류 햇빛을 가리고 있었다. 법안은 말없이 손으로 그것을 가리켰다. 대중 가운데 두 사람이 일어나 다가가서 그것을 걸어들었다. 법안은 이를 지켜보고 나서 말했다. "한 사람은 알아들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전혀 알아들지 못했다." 두 사람의 행동은 똑같은 것이었다. 두 사람 다 스승의 손이 발을 가리키는 것을 보았고, 두 사람 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 다 발쪽으로 다가갔고, 두 사람 다 발을 걸어들었다. 우리는 둘의 차이를 확인할 아무런 표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 외적으로는 그의 내면의 선악과 동기의 진위를 파악할

할 수 없다. 이 취지를 일러주는 전형적 공안을 앞에서 본 적이 있다. 제 14장 조주의 헛바닥이 그것이다.

*조주가 어느 암자를 방문하여 물었다. "안에 누가 계신가." 암자의 주인이 (삐죽 머리를 내밀더니 말없이) 주먹을 들어 보였다. 조주는 "물이 알아서 배를 뱉 수 없구만" 하고 가버렸다. 그 후 또 다른 암자를 방문하여 물었다. "안에 누가 계신가." 그 암자의 주인도 (말없이) 주먹을 뱉 뿐이었다. 조주는 "들었다 놓으며, 죽이고 살림이 재자(自在)로운 사람일세" 하고는 큰절을 올렸다.

*나 해개가 말한다. 주먹을 들기는 매일반인데, 어찌서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는 인정하지 않았나. 어디 말해보라. 눈을 속인 자리는 어디인가. 여기서 한 소식을 얻는다면, 조주의 헛바닥에 빠가 없다는 것을, 그리하여 일으켜세우고 거꾸러뜨림에 걸림이 없음을 알 것이다. 그렇더라도 어쩔 것이냐. 삶은 조주가 그들에게 시험을 당했으니. 만일 두 암자 주인이 우열이 있다고 하면 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며, 우열이 없다고 해도 또한 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다.

*송하여 가로되, 눈은 유성과 같고, 움직이는 법계가 변칙이듯, 사람 죽이는 칼이 어느새 사람 살리는 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불교와 수학 45

공리

김용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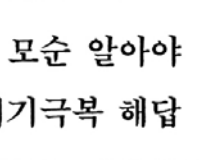
이반 MF 사태를 통해 우리는 서구인의 계약(契約)사상을 새삼 통감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반사막지대이며 그 주변에는 가혹한 사막이 둘러싸여 있다. 그 곳에서는 자급자족이란 생각할 수 없으며 오직 교역만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사막의 대상에 상징되는 유목민의 생활은 남은 농산물을 내다 파는 농경 사회의 장사와는 판이하다. 일단 약속(계약)이 성립하면 며칠간이나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사막을 가로질러야 한다. 사막지대의 계약은 생명이며 절대적인 생활의 지혜이며 심지어 결혼식에서도 이혼을 했을 때 돈을 얼마씩 나누어 갖는다는 것까지도 계약할 정도이다.

종교를 영어로는 Religion=re-ligion, 즉 결합을 뜻하고 있다. 율죄를 범함과 이브의 자손인 인간이 신(神)과 계약을 맺고 서로 결합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신을 중심으로 묶여진 집단 내의 구성원과 다른 사람과의 신뢰관계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50

하고 배타성(排他性)이 나타난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제를 정해두고 공리라고 부른다. 공리는 수학자 사회의 계약이다. 일단 정해진 공리(계약)는 절대적이며 그 일부만이라도 무시하게 되면 수학의 탐은 무너지고 만다.

지난 호에서는 0의 발견으로 세계 수학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한 인도 수학은 세계 수학의 주류가 될 수 없었다. 공리라는 수학상의 계약이



서구의 논리에는 동떨어진 개념이 있다. 공리수학만이 세계수학이며 모든 인간의 사유, 특히 논리 형식은 그 체계에 포함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모순을 갖게 된다.

우리는 국제 경제의 틀 속에서 경제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렇다면 그 논리의 한계와 모순을 충분히 알아차려야 한다. 그 사실은 곧 세계 경제와 가혹한 계약(언어), 수학의 논리로 전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속에 모순이 있든 없든 그 논리는 우리를 구속한다. 이제 우리는 MF 사태로 세상 서구논리의 실상을 피부에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수마하는 불교적 경제학을 주장했다(작은 것이 아름답다). 연기사상에 입각한 경제학이 인류의 위기를 구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많은 동조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최근, 특히 90년대 이후 실유불성(悉有佛性)의 철학을 긍정하는 복잡성(카오스)의 수학이 등장했다. 그것은 오히려 진리의 추구보다는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리적 수학을 계약의 수학(서구수학)이라 한다면 복잡성의 수학은 불교적 수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 경제학의 주류에 맞선 수마히 경제학의 대비와 같은 것이라 하겠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계약수학의 논리한계 · 모순 알아야 '실유불성' 철학세계 위기극복 해답

없었으므로 전세계에 수학 공통의 장을 제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디에나 부처(진리)가 있다는 실유불성(悉有佛性)의 입장에서 공리를 생각할 수 없다.

수학이란 현상을 효과적으로 생각한다는 현실적인 목적이 있다. 이때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물음이 나온다. '생각의 수단 언어'이다. 언어를 효과적으로 구사하기 위해 형식적인 논리가 구축된다. 20세기 최대의 수학자 B.러셀은 '수학이란 논리이다. 진리도 거짓도 아닌 논리의 형식이며, 다른 과학에 이용되건 말건 아무 상관하지 않는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사람이 정한 공리를 절대화 한 논리의 속명이다. 이쯤 되면 수학은 언어의 장난에 불과하다는 비난 소리가 나올만도 하다.

불교, 특히 유식론에서는 사유(慧惟), 생각하는 것이 언어의 허구성에 기반을 두고 나타나는 것이며, 사유를 초월한 곳에 대각(大覺)의 경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리론에서는 절대 진리에 도달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유식론은 언어에 얽힌 인간의 습성을 남남이 파헤치고 그 허구성을 알아차림으로써 창조와 옳은 사고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한다. 특히 불교 철학에는 연기(緣起)와 같은,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97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이천만 불자의 참대변자,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97년 한해를 총집결한 합본 '97년판을 발간합니다.

● 합본집('97년판) : 제109호(1997년. 1.1)-제156호(1997.12.24)
● 가 격 : 60,000원(발송비 별도)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대) 02)737-8881 팩스 : 02)737-0697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 광채' 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經筆(眞品) 佛子體의 神秘를 최초로 공개

금강경, 법구, 다라니, 각종 불서, 범품

●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장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敎文化藝術院 雲藏法師經筆硏究會

부처님·가르침·경·운·선·학·는·함·교·속·의·강

선우강좌 개강안내

서반반 우리는 선우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의 오해와 그 사회적 응용을 비로써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기발견을 위하여 선우강좌를 개설. 제2기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심·분심·선학·심학으로 이어지는 정법자상을 통칭하고 관세자를 이끌어 가는 자기발견을 영성하는 교육의 신념이 되어서 선우강좌에 사두대중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1. 강좌일정안내

기간	강사	제목
I. 부처님의 생애		
제 1주(3/16)	도법스님	부처님의 생애와 우리의 삶
II. 기초 교리		
제 2주(3/23)	성일스님	근본불교 I
제 3주(3/30)	성일스님	근본불교 II
III. 대승 불교		
제 4주(4/6)	김성철교수	공자상의 쉼논리
* 4/11(토) ~ 4/12(일) 수련회(장성 백암사)		
제 5주(4/20)	본각스님	화엄경에 나타난 생할윤리
제 6주(4/27)	이병욱님	다시 보는 법화경
* 특강		
제 7주(5/4)	법봉스님	통일운동과 불교인의 실천윤리
* 5/10(일) 장애인 나눔이 행사(장충단 공회)		
제 8주(5/11)	신영훈님	한국의 건축문화 이해-불국사
제 9주(5/18)	고 은님	불교문화 가까이 하기
제 10주(5/25)	보각스님	나누는 삶의 행복
제 11주(6/1)	대화스님	동사상-마음알기·나누기·행하기
제 12주(6/8)	김용운교수	불교의 카오스 이론
제 13주(6/15)	이재열법사	불교의 수행체계
제 14주(6/22)	윤원철교수	불교-철학적 접근과 종교적 이해
제 15주(6/29)	장원교수	내 마음이 만드는 청정국토

2. 등록 안내

- 기 간 : 3월 16일 ~ 6월 29일(총 15주 강의)
- 때 : 매주 월요일 오후 7 ~ 9시
- 장 소 : (사)우리는 선우 내 선우법당
- 인 원 : 정규반 60명, 특선반 30명
- 등록금 : 8만원(특선반 9만원, 대학생 4만원)
- 문의처 : 278-8672(대표)

서반반 우리는 선우 공동대표 남지심 · 박광서 (100-392)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88-6번지 뉴강동빌딩 3층 전화 278-8672(대표) 전송 : 278-8675